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경상남도의 긴급 위기가정 및 결연세대 약 1,900여 가구 2,800여 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하동, 합천지역 집중호우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위기상황 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씀씀이가 바른기업**을 기다립니다.



민우가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8살 민우는
여느 또래들과 같이 밝고 개구진 아이지만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27주, 630g으로 태어난 민우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형들과 한창 놀고 싶은 민우는
넘어지고 무릎이 까질 때도 있지만 밝게 웃으며 다시 일어납니다.
수술과 재활치료만 꾸준히 받는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기초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든 가족에게 민우의 치료는 꿈만 같습니다.
민우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세상에 설 수 있도록
후원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세요.



민우 이야기 보러가기▶

“ **씀씀이가 바른기업**의 기부금은 ”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2020년 하동, 합천지역 수해 구호활동

재난구호 활동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에 맞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종합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합니다.



위기가정 발굴 및 생필품 지원 활동

위기가정 긴급지원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